**반송된 美產 쇠고기서****허용치 초과 다이옥신**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됐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t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 임유 허용 기준인 5 피코그램(pg)/(g fat)을 웃도는 6.1p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 사설을 미국측에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내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내 쇠고기의 경우 최근 사례가 없었고 유럽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지난 10월 말 2년 10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3번째 수입 물량으로, 육안 검사 결과 갈비본살(chuck short rib)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돼 지난 6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취해졌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방화 4명 화상

현직 경찰관이 호프집에 불을 질러 업주 등 4명이 화상을 입었다.

21일 밤 10시 15분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S호프집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유모(43) 경사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18ℓ를 석유난로에 부어 불이 났다.

불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난로 옆 티이블에 앉아 있던 업주 김모(여·43)씨와 종업원 오모(40)씨, 손님 이모(51)씨 등 3명이 전신에 1~3도의 화상을 입어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오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경사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경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김씨와 호프집 정리 문제로 찾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 정착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제이유 관련 공직자 3명 무혐의

제이유 그룹과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이재순 전 비서관 가족 6명은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지난해 12월 이후 1억 5천여 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2일 종남 수사부리밍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들은 아무런 로비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고위 공직자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장비서관, 박모 치안감, K차장검사 등 3명이다. /연합뉴스

외국인 최초 日 국립대병원 주임교수 정충화씨**한국인 자존심, ‘차별’ 이겨내다**

“만약 일본에 살면서 차별을 전혀 안받았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나에게 한국 국적을 끝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일본 국립 가고시마 대학 순환기내과 주임교수 정충화(61·일본명 츠와 테이)씨. 재일교포 2세인 그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국립대학 주임교수가 된 ‘한국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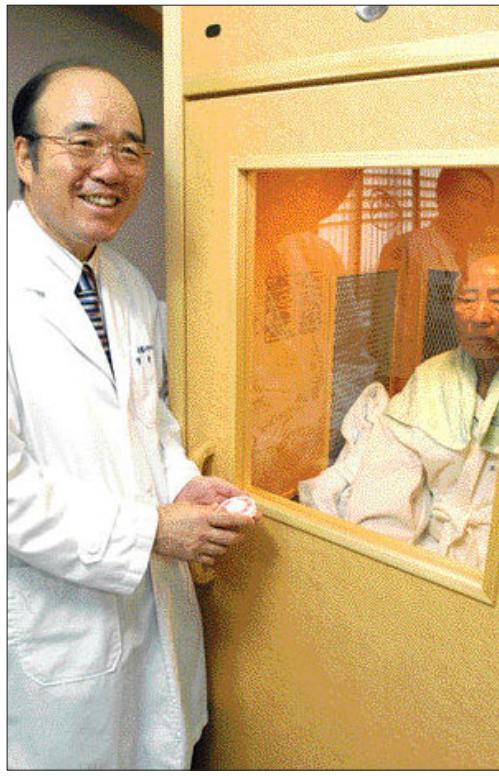
그는 자신이 개발한 6천만원 상당의 ‘원적외선 균등 치료기’를 기증하기 위해 최근 조선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 1991년 가고시마 대학에서 공동으로 치료기 개발을 한 조선대 장경식 교

인사 불이익…분교로 떠밀려**사우나 치료법 개발 큰 반향**

수의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사우나 형태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이 기기는 ‘심장병 환자에게 사우나는 독’이라고 알려진 그간의 정설을 뒤엎는다. 60도 수준의 운도와 적절한 시간(15분)을 유지하면 말초혈관을 늘려 심장의 부담을 덜고, 심장 박동수를 10% 이상 증가시킨다는 이론을 내세워 일본 심장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8월, 경희대병원 동서 신의학병원에 처음으로 도입된 ‘원적외선 균등 치료기’는 내년에 전남대 병원을 비롯한 국내 10개 병원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버지는 55년 전, 제가 여섯 살이 되던 해 고향인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본으로 식구들과 함께 건너 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 국적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것은 기억이



정충화 교수는 조선대 병원에 설치된 ‘원적외선 균등 치료기’ 앞에서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납니다.”

그는 1973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고시마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도쿄대 연구원, 일본 UCLA 조교수, 미국 메이요병원 연구교수 등을 지내며 ‘헬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특히 순환기내과 주임교수와 갈등이 심했어요.

진급도 더뎌서 정교수가 된게 1998년입니다.”

정 교수는 1989년 ‘대학교수를 그만 두고 개업을 할까’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중이었다. 바로 그때 “죽기 전 한번만이라도 온천에 몸을 담그고 싶다”는 73세의 심부전증 환자를 만났다. 의료계에서는 ‘심장병 환자에게 사우나는 독’이라고 알려져 왔었다.

환자의 간절한 부탁에, 정 교수는 꿈꿔온 장비를 챙기고, 동반을 조건으로 입욕을 허락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온천욕을 마친 환자의 병세가 급속도로 좋아져 퇴원까지 하게 된 것이다.

정 교수의 ‘사우나’에 대한 연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물의 압력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선대병원에 치료기 기증**“모국 사랑이 삶의 버팀목”**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온천보다 위험도가 낮은 사우나로 연구 범위를 좁혔다. 1994년에는 그간의 연구를 논문으로 내놓았다. 학계의 정설을 뒤엎은 그의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 학회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 1994년부터 심장 연구로 정평이 난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에서 연구 교수로 2년간 일했다.

그는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승진, 2003년에는 순환기내과로 전과되었고, 분교 밸링 등 인사 불이익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선입니다.

딸 셋에게도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익히고 하고,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하거나 한국 대학에 진학하도록 했다. 그에게 고국은 ‘자존심’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우침 <7009>

**치매 급증****5년새 두배나**

노인성 치매 환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5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성 치매로 진료를 받은 마을버스들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실제 새롭게 선보인 시내버스 LED 번호판은 “인식이 쉽다”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마을버스들은 작고 초라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불편을 듣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는 개당 11만원 가량을 들여 차량 앞뒤에 LED 번호판을 붙였지만 마을버스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마을버스 관리의 둑을 업체와 자치구에 돌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직은 곳곳 혼란…‘환승’이 성패 관건**■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둘째날**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노선개편 시행 이틀째를 맞아 새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날에 이어 22일에도 광주지역 대부분 시내 버스 정류장에는 새 노선표를 바라보며 새로 바뀐 버스 번호와 환승지를 헤아리는 학생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여전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선이 많이 줄어든 구 도심지역 승객들은 환승을 유도하는 노선개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

다. ▲환승효과 균등화가 관건=광주시는 장거리 중복 노선을 줄이는 대신 중·단거리 노선과 환승지점을 늘리고 배차간격과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환승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선을 만들었다.

그러나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 배차 간격이 어김없이 무너져 승객들은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데 ‘1분이 아까운’ 출근시간을 허비하고 연거푸 도착한 같은 번호의 버

스를 보며 허탈해 하기도 했다.

이에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버스 전용도로 확대를 통한 승용차 운행 억제 정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합교통체계 운영개선 검토=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연계한 통합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시도는 전날 지하철 이용객이 100% 가까이 늘어날 만큼 성공적인 첫 발을 디뎠지만 운행상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하려는



22일 오후 광주역 광장 앞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사 ‘명퇴 바람’**광주·전남 77명 신청**

광주·전남지역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은 초등 39명, 중등 22명 등 61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2005년 2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2006년 2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28명이었다.

2005년 2월과 8월을 합친 전체 명예퇴직자수(19명)와 비교하면 3.2배, 올 해 전체 명예퇴직자수(44명)와 비교하면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광주는 초등 8명, 중등 8명 등 1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05년 2월과 2006년 2월의 명예퇴직신청자수는 각각 8명과 12명이었다. 2005년 전체 명예퇴직자수(12명)와 비교하면 1.3배 많고 2006년 한해 동안의 명예퇴직자수(16명)와 같은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 교사들이 연금법이 바뀌기 전에 퇴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교育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 교사들이 연금법이 바뀌기 전에 퇴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검침원 사칭 농촌노인 돈 갈취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한전 검침원을 사칭해 누전 차단기 기를 교체해야한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40대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박도(44·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씨 등 2명은 지난 5월 중순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정모(여·79)씨의 집을 찾아가 ‘누전 차단기 가 오래돼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며 정씨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저가(4만원 상당)의 누전 차단기로 교체해 주는 등 5회에 걸쳐 100만여 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농촌 노인들이 누전 차단기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광 = 조